

대전충남양돈조합 백신사업팀

“백신접종은 우리에게 맡겨 주세요”

농장에서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인공수정 도입,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인력의 효율적인 이용등과 함께 선진양돈농장을 경영하기 위한 배움의 자세와 매사에 추진할려고 하는 진지한 노력이 있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생산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각 양돈농가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생산비를 낮추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중이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양돈농가가 국제경쟁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과 함께 아주 중요하게 거론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바로 효과적인 분뇨처리와 질병에 대한 완벽한 백신접종, 그리고 철저

한 방역이라 하겠다. 특히 분뇨처리 문제와 함께 질병의 감염을 어떻게 차단하느냐 하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양돈경영을 계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충남 천안시에 소재한 대전충남양돈조합에서 천안을 비롯한 온양, 서산, 연기, 당진 등의 양돈농가들을 대상으로 백신접종과 방역사업을 실시해 주고 있어 찾아 보았다.

천안지역 몇 개 농장으로 부터 백신접종 위탁 시작

이 사업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2년전에 대전충남양돈조



백신방역 사업을 조합사업으로 추진하여 양돈농가들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대전충남양돈조합 송건섭 조합장

합의 조합원인 천안지역의 몇 농가에서 농장마다 각자 백신접종을 하다보니 농장의 시설보수나 기타 전반적으로 농장 관리하는 시간이 많아 백신접종을 적기에 하지 못하고, 백신접종 실시 시간의 기록과 백신접종하는 시기를 자주 놓침으로 백신감각이 무더지게 되었으며, 이것이 곧 농가피해로 이어지는 등 올바른 백신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자 백신접종만 전문으로 하는 시술인과 계약을 맺어 백신접종을 위탁하게 되었다.

그러나 계약농가가 많아지고 시술자의 시간과 적절한 지역안배 등 효율적인 면이 떨어짐으로 조합에서 대전충남지역의 조합원 및 양돈사양농가의 질병피해 방지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사양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농장별 농장상황에 맞는 백신프로그램으로 백신접종을 정확한 날짜에, 정확한 양을, 정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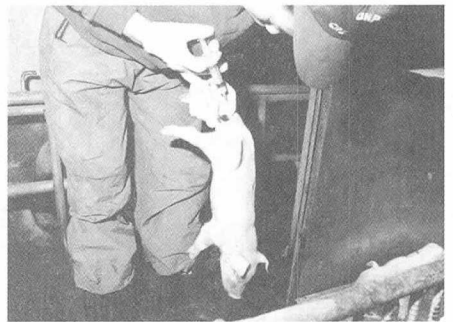
한 방법으로 집중하여 농장의 질병을 예방하고자 시술인을 15명으로 대거 확보하고 전문수의를 두어 이 사업이 체계적이고 농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합사업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즉 대전충남양돈조합은 전문 수의사 2명을 두어 백신

프로그램 작성 등 농장 컨설팅을 하계끔 하였으며, 시술인을 방역요원이라 하여 계약을 맺어서 많은 양돈농가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조합내 백신접종을 받는 농가의 규모는 1백여 농가로 대전충남지역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지역간의 효과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A지역(천안), B지역(아산), 및 C지역(서산·당진)으로 나누었는데 이 세곳의 돼지두수는 모돈 10,000두 정도의 규모이며, 방역요원 1인당 모돈 1,000두 정도를 담당하고 있었다. 또한 매주 또는 2주에 한번씩 조합 수의사와 방역요원이 모임을 갖고 본인이 담당하는 농장의 상황 등을 보고하는데, 농장에 아주 세심한 문제라도 발생하면 수의사가 농장을 직접 방문하

여 시료를 채취한 후 직접 검사하거나 인근 충남대학교 가축위생시험소에 검사를 의뢰하여 농장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등, 농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체계적인 업무를 시행하고 있었다.

현재 15명의 방역요원들은 수의사의 통제에 의하여 담당농장의 모든 백신접종 뿐만 아니라 수돼지 거세, 농장의 임신재발돈의 발견 및 번식장으로 인해 손실되는 경제적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한 임신진단 등도 실시해 주고 있었으며, 수의사들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농장방문, 병성감정 실시등과 함께 농장에 맞는 효과적인 백신프로그램을 작성해 주는 등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또한 조합내 전산실에서 자체 제작한 경영분석 양돈장 경영관리서비스(PMS : Pig farm Management Servic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농장에서의 계획적인 관리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주 단위의 기록



양돈장에서의 모든 백신접종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포유자돈에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

입력 및 주, 월, 연간 단위의 분석자료를 보급하여 농장에 비전을 제시하는 등 문제점 분석 및 경영분석을 철저히 해주고 있었다.

호흡기질병 등 차단에 효과 커, 그러나 질병전파 우려 등 단점도 있어

각 농장에서도 방역지도사를 통해 백신접종을 받은 후 부터는 호흡기, TGE, PED 등의 질병을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보았을 뿐 아니라, 백신접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다른 관리업무에 투여할 수 있으며, 특히 농장에서 행해지는 모든 백신접종을 빠뜨리지 않고 접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대전충남양돈조합의 백신접종사업은 단점도 가지고 있는데, 방역요원이 농장과 농장을 이동시 오히려 질병전파의 매개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이유로 조합에서는 농장마다 방역복과 신발, 그리고 백신도 농장마다 준비해서 농장간의 질병전파를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것이 완벽한 방법인지는 의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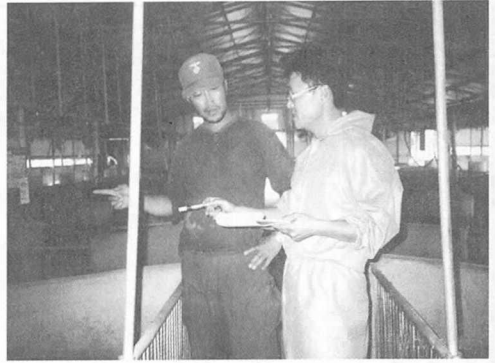
또한 각 지역별 충분한 방역요원의 확보도 어렵다는 점이다. 지금 현재 방역요원 1명이 평균 10개 농장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는 방역요원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는데, 정부나 양돈협회 등에서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이러한 방역요원을 양성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었다.

농가에서는 현재 모든 1두당 2,500~3,000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가격은 조합에서 농가와 방역요원의 입장을 조율하여 현실성 있게 지정하였다고 한다.

이 백신접종사업을 조합에서 관장한 이후로는 모든 방역요원이 조합 수의사의 통제에 의해서 백신접종을 하므로 농가에서는 믿고, 안심하고 백신접종을 맡길 수 있는 등 상호간의 신뢰속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농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시 이에 대한 조합의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농가의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대전충남양돈조합 정준호 수의사는 “아직까지는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조합내 계약된 각 농장별 백신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업무가 계속되어지고 있으며, 지역별로 나누어 방역요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등 최선을 다



백신방역사업의 실질적인 담당자인 정준호 수의사가 농장에서 백신방역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하고 있다.

하고 있다”고 말하고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전용병성감정 실험실을 운영하고, 산학연대를 확대해 진단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높여 더욱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한다.

또한 대전충남양돈조합 송건섭 조합장은 “현재 대전충남지역 회원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조합을 통해서 받고는 있지만 농장에서 백신접종을 다했다고 해서 질병이 100% 차단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양돈농가가 완벽한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질병의 완벽한 차단은 무척 힘든 일이다”라고 말하고, “우리조합이 처음 실시하는 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시켜 전국적인 백신접종과 방역이 취해졌을 때 이 사업의 성공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養豚**